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이 재 림(영남대학교 전임강사) · 김 지 애(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차 동 혁(서울대학교 박사수료) · 이 향 희(서울대학교 석사수료)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함으로써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부모교육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 학문적, 실천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조성은, 2004).

부모교육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순형 등(2010: 10)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이라고 하였고, 신용주와 김혜수(2011)는 ‘부모가 부모역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략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외에 협의의 정의로 ‘가족 체계 혹은 자녀돌봄 체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변화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Brock, Oertwein, & Coufal, 1993)이라는 정의도 있다. 이렇듯 부모교육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부모역할 혹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모교육은 가족생활을 향상시키고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한 가지 영역으로서 예방적인 성격을 띤다.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는 부정적인 자녀발달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으며, 부모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예방적 활동은 개인과 지역사회에서의 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Coie, Watt, West, Hawkins, Asarnow, Markman et al., 1993; Weissberg, Kumpfer, & Seligman, 2003). 특히 부모역할 지원과 부모의 역량강화와 같은 예방적 활동이 가족정책의 주요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적으로 부모역할 지원과 역량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있어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 특히 가족 내에서

\*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2011)에서 발행한 연구용역보고서 『가족정책기초연구』(연구보고 2011-56, 연구책임자 : 옥선화, 공동연구자 : 장경섭, 최연실, 성미애, 진미정, 이재림, 강은영)의 2장 4절의 내용을 추가분석 및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라는 사회 투자국가론의 핵심이기도 하다(성미애, 송혜림, 2008). 가정학계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역량 있는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과 자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도 부모역할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송혜림, 박정윤, 이완정, 성미애, 서지원, 진미정, 2009).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적인 방안으로 부모교육에 주목한다.

부모교육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족정책의 기본틀이라고 볼 수 있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년-2015년)의 대과제를 살펴보면, 대과제 2인 ‘자녀돌봄 지원 강화’의 두 가지 중점 추진과제인 ‘추진과제 1.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와 ‘추진과제 2. 부모역할 지원’ 중 추진과제 2에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상자의 내용과 같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년~2015년)과 부모교육

대과제 2 자녀돌봄 지원 강화 > 중점 추진과제 2. 부모역할 지원 > 부모역량 강화

#### 1.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 자녀발달 연령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가족 특성, 지역, 부모의 특성 등)으로 세분화
- 전달체계 확대(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등), 온라인 교육 이수제 도입
- 부모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연계

##### ▶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가족특성, 자녀의 발달단계 등에 따른 맞춤형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위기 아동·청소년의 부모교육 강화

- 보호관찰 청소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북한이탈주민가족과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조손가족 조부모 등 대상의 부모교육 강화

##### ▶ 부모를 위한 콜센터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부모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 컨설팅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상담, 정보 획득,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

## 2. 예비부모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지원

### ▶ 예비부모교육 활성화

- 일반 예비부부,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 실시

### ▶ 결혼 전 준비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하 생략)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가족행복 더하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중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도 부모교육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이복실, 2011).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최근 학교폭력이나 자살,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법의 한 가지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근거중심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꾸준한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교육과 관련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초기에는 부모교육의 일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면(Cedar & Levant, 1990), 최근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Barlow, Coren, & Stewart-Brown, 2002)이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Reyno & McGrath, 2006), 아동학대 예방(Lundahl, Nimer, & Parsons, 2006)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성 지표에 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Holmes, Galovan, Yoshida, & Hawkins, 2010)과 같이 구체적인 성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거나 효과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Kaminski, Valle, Filene, & Boyle, 2008; Lundahl, Risser, & Lovejoy, 2006)도 이루어진 바 있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부모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는 현재까지 4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인 메타분석으로는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의 석·박사 학위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숙영, 이윤주, 정혜선(2002)의 연구와 그 이후인 2002년부터 2011년

8월 사이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경란(2012)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격의 메타분석으로는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역시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성은(2004)의 연구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윤희(2009)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이들 국내 메타분석 연구의 특징은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학술지 연구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가 좀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학술지 연구를 배제한 결과만으로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최근의 국내 학술지 게재 연구의 결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분석이란 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종합할 목적으로 개별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통합하는 연구방법으로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이라는 의미에서 메타분석(meta-analysis)이라고 한다(오성삼, 2009). 메타분석을 통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효과의 강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메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관련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1]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2]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3] 자녀의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프로그램의 특성(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회기수, 집단특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검색방법 및 선정기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발간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에 활용한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L), 누리미디어(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원(KISS)이었으며, (1) ‘부모’, (2) ‘교육’ 또는 ‘훈련’, (3) ‘프로그램’의 세 가지 검색어를 모두 포함한 연구를 검색하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이외에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단행본, 정부 및 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학술지 이외의 형태로 발간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취합한 연구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를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의 프로그램 참가 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모두 사용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교육대상은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를 교육대상으로 한 연구를 선정하였으며, 특정한 성격의 부모(예 : 장애아 부모, 부적응행동 아동의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이혼한 부모, 저소득층 부모 등)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교육의 목적이거나 내용이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포함하였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는 메타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예 :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내용만 개발한 연구, 문헌고찰 등)와 일회성 프로그램만을 실시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하지 않은 연구와 통제집단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도 제외하였다. 또한 메타분석에 필요한 정보(예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크기, 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닌 예비부모나 자녀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와 한 명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검색과정과 선정과정을 거쳐 총 42편의 학술지 게재 연구를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구체적인 출판사항은 참고문헌 목록 중 \*표시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분석방법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42편의 연구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변수를 <표 1>와 같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의 세 개의 변수군으로 분류하였다. 자녀의 변화를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사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행동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나눈 부모의 변화와는 달리 구분하지 않았다. 자녀의 변화는 부모가 보고한 변화와 제 3자가 보고한 변화가 모두 포함되었다.

<표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사용된 변수 분류

분류	설명
① 부모의 행동적 변화	· 양육태도(양육유형), 양육행동,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
② 부모의 내적 변화	·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부모유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③ 자녀의 변화	· 문제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건강, 자아개념,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학습기술 등

이와 같은 변수군 별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점수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로 Hedges'  $d$  값을 계산하였다. 효과크기의 의미와 종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글상자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edges'  $d$  값의 계산에 활용된 수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인원수였다. 효과크기가 클수록 부모와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부정적 성격의 변수(예 :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문제행동)는 음 또는 양의 부호를 바꾸어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mean group difference effect size)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 CI)을 사용하였는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면 효과크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효과크기(Effect Size)의 의미와 종류

- 효과크기는 '분석대상이 되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을 통합 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의 단위로 변환시켜 놓은 것'을 의미함(오성삼, 2009, p.16)
- 효과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임
  - ①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분석한 경우 상관계수  $r$  값을 표준화시킨 Fisher's  $z$  값을 사용함
  - 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차이와 같이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경우 이를 표준화시킨 Cohen's  $d$  값이나 Hedges'  $d$  값을 사용함. 이 연구는 Cohen's  $d$  값을 계산하였음.

한편,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개별 연구에서 계산한 효과크기가 유사한지를 검사하는 동질성 검정량  $Q$ (homogeneity  $Q$ ) 값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Q$  값이 유의하여 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연구의 특징(즉, 조절변수)을 몇 가지 선정하여  $d$  값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서 선정된 조절변수는 자녀취학 여부(미취학 vs. 취학), 교육인원수(15명 이하 vs. 16명 이상), 교육대상(어머니 vs. 부모), 프로그램 회기수(8회기 이하 vs. 9회기 이상), 집단특성(일반집단 vs. 특수집단)이었으며, 이들 변수를 이분변수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메타분석용 소프트웨어인 MetaWin 2(Rosenberg, Adams, & Gurevitch, 2000)를 사용하였다.

### 동질성 검정량(Homogeneity $Q$ )

- 동질성 검정량  $Q$ 는 효과크기가 전체 연구들이 공통의 효과크기를 가지는가를 검정(영가설 : 모든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일하다)하는 값으로,  $Q$  값이 유의하다면 효과크기의 분산이 표집오차에 의한 분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Hedges & Olkin, 1985)
- 상충하는 연구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절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음(진운아, 이나련, 정유진, 2011)
- Homogeneity  $Q_w$ 는 범주내 동질성에 대한 검정량이고, Homogeneity  $Q_b$ 는 범주간 동질성에 대한 검정량임

## III.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특성 및 효과크기를 살펴본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1) 부모의 행동적 변화, (2) 부모의 내적 변화, (3) 자녀의 변화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별 특성 및 효과크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기에 앞서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2편 연구의 특성을 정리하고 개별 연구별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2편의 연구 중 자녀의 취학여부를 알 수 없는 한 편을 제외한 41편 중 18편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편은 취학 자녀, 즉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에 3편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와 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모두 포함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인원수는 5명에서부터 74명까지로 다양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42편의 연구 중 15명 이하를 교육한 연구가 20편, 16명 이상을 교육한 연구가 22편이었으며 평균은 21.79명이었다.

교육대상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2편의 연구 중 어머니만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구가 35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7편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참가하였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고만 하고 부모의 성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통제집단을 사용한 연구가 없어 본 메타분석에는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회기수는 5회기에서 15회기 사이에 분포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수가 일정하지 않은 2편을 제외한 40편 중 8회기 이하가 21편, 9회기 이상이 19편이었다. 평균은 8.82회기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42편의 연구 중 12편은 특수한 성격의 부모(장애아 부모, 미숙아의 부모, 저소득 부모, 이혼한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학교부적응 아동의 부모 등)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2>를 토대로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변수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29개 효과크기는 모두 양의 값으로 .04에서 3.29 사이에 분포하였다. 둘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한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31개 효과크기의 절대값은 .05에서 8.46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이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자녀의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9개 효과크기는 모두 양의 값이었으며 .08에서 2.15 사이에 분포하였다.

〈표 2〉 메타분석에 포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별 연구의 특성 및 효과크기

저자(년도)	자녀 취학 여부	교육 대상	회기	집단특성	교육인원 (실험/ 통제집단)	효과성 검증 변수			효과크기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
강신경(2011)	취학	부모	8	일반	32/32	의사소통, 가족 유연성, 가족관계	-	-	.85		
구미지 외(2009)	취학+미 취학	모	3	개심출환아	18/18	대처행동, 관련지식	-	-	2.57		
권순영, 유형근(2007)	취학	모	10	일반	8/21	-	-	학습기술	1.01	1.24	
권희정, 권미경(2007)	미취학	모	4	미숙아	16/14	-	양육스트레스, 모성역할자신감	-	.18		
김경은, 정옥분(2007)	미취학	모	8	일반	39/35	-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99	.95	
김미례 외(2008)	취학	모	12	장애아동	12/12	-	양육스트레스, 자기격려, 자기낙담	-	2.05		
김사라형선(2011)	취학	모	8	일반	12/12	-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8.46		
김영란, 김영태(2011)	미취학	모	12	다문화	5/5	언어행동	-	어휘정확도	1.01	2.15	
김영옥, 박성연(2011)	미취학	모	8	일반	27/20	상호작용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1.36	.20	
김인홍(2006)	취학	모	10	주의집중 문제아동	14/15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	2.57	3.47	
김정순, 신희진(2010)	미취학	모	-	미숙아	17/15	-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긴장문제	1.28	.19	
김진이, 정문자(2006)	미취학	모	10	일반	26/25	상호작용시 행동	양육스트레스, 부모유능감	-	.78	.97	
김현자(2007)	취학	모	12	일반	18/18	양육태도, 의사소통	-	-	.29		

저자(년도)	자녀 취학 여부	교육 대상	교육 회기	집단특성	교육인원 (실험/ 통제집단)	효과성 검증 변수				효과크기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	
류경희(2009)	취학	모	5	일반	13/13	양육태도	인터넷 사용지도에 대한 부모효능감	-	.16	.75	.57	.08
박상희(2007)	미취학	모	12	일반	14/14	-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	-	1.00	-	-
박진옥(2006)	미취학	모	7	일반	11/16	-	양육스트레스	유아행동	-	.57	-	-
박현미(2006)	미취학	모	12	일반	30/30	양육태도	-	-	2.45	-	-	-
서은주, 이현림(2011)	취학	모	12	일반	10/10	상호작용	자이존증감, 성인에좌	-	1.49	1.03	-	-
손수향 외(2007)	취학	모	8	일반	10/10	의사소통	-	-	1.97	-	-	-
신성희, 원정숙(2009)	취학	모	6	일반	28/30	양육태도, 의사소통	자이존증감	-	.53	.54	-	-
양미진 외(2010)	미취학	부모	7	지소득	31/29	상호작용, 이동조절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31	.20	-	-
이사라, 박지숙(2010)	취학	모	8	일반	15/15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	.17	.34	-	-
이숙미, 김성희(2009)	취학	모	11	일반	10/10	대화/훈육	세계관, 인간관	-	1.22	1.31	-	-
이순복, 정미숙(2006)	미취학	모	12	일반	66/79	-	양육효능감	-	-	.16	-	-
이정은, 김춘경(2010)	취학	부모	4	ADHD 아동	8/9	-	부모효능감	-	-	1.09	-	-
이종석(2011)	취학+미 취학	모	8	일반	10/10	양육태도	-	-	1.67	-	-	-
이지민 외(2010)	미취학	모	-	미숙아	24/25	-	불안, 모성자신감	-	-	.84	-	-
이현림 외(2007)	-	부모	10	일반	15/15	양육태도, 의사소통	-	-	1.46	-	-	-
이희백(2007)	취학	모	10	일반	16/16	상호작용	정신건강	-	2.23	.85	-	-

지자(년도)	자녀 취학 여부	교육 대상	교육 회기	집단특성	교육인원 (실험/ 통제집단)	효과성 검증 변수			효과크기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장미경(2011)	취학	부모	7	일반	74/63	양육태도, 게임관심/통제	부모역할자긍심, 자신감, 통제감, 부모자녀관계 만족감	-	.19	-0.05
장성애, 유연옥(2008)	미취학	모	8	일반	16/20	-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	1.21
정교영, 신회천(2011)	취학	모	8	일반	25/25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욕구만족도, 생활만족도	-	.37	.31
정남주, 이영환(2010)	미취학	모	10	일반	9/9	공감능력	-	문제행동	3.29	1.83
정미숙 외(2010)	미취학	모	10	일반	54/53	-	양육스트레스	-	.42	.24
정원철, 유영달(2011)	취학	모	9	학교부적응 중학생	16/16	의사소통	자이상태, 자이존증감	-	.64	.84
조윤숙, 이윤주(2011)	취학+미 취학	부모	8	일반	14/14	의사소통, 상호작용	자이존증감	-	1.99	1.94
조일현, 성승연(2011)	취학	모	10	다문화	12/12	양육태도	자존감	-	.04	.55
천희영(2009)	미취학	모	8	일반	24/30	스트레스 대처방식	CSA 신화/고정관념	CSA 이해도, 대처능력	1.27	.50
최형성(2010)	취학	모	8	다문화	7/7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문제행동	1.59	1.40
한민경 외(2010)	미취학	모	15	일반	63/71	의사소통	-	의사소통, 자이개념	1.82	1.67
황옥자(2009)	미취학	모	8	일반	13/13	양육태도	자이개념	-	.64	.79
황은숙, 서영숙(2007)	취학	부모	12	이혼	33/52	관계개선	자이개발견, 현실극복	-	.88	.67

## 2.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중 양육태도(양육유형), 양육행동, 의사소통, 상호작용 행동과 같은 부모의 행동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총 29편의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는 <표 3>과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d = .89$ , 95% CI =  $.77 \sim 1.02$ ). 효과크기  $d$  값은  $.89$ 로서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에 해당한다. 효과크기  $d$  값의 의미와 해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상자에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평균적인 부모는 참가하지 않은 부모의 81%보다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고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3>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변수	효과크기 수( $k$ )	평균 효과크기 ( $d$ )	% <sup>1)</sup>	95% 신뢰구간 ( $CI$ )	범주내 동질성 ( $Qw$ )	범주간 동질성 ( $Qb$ )
전체	29	.89	81	.77 ~ 1.02	149.19***	
자녀취학 여부						
미취학	9	1.06	86	.83 ~ 1.29	58.68***	9.70**
취학	16	.66	75	.48 ~ .83	55.73***	
교육인원수						
15명 이하	14	1.14	87	.86 ~ 1.41	46.95***	4.78*
16명 이상	15	.82	79	.67 ~ .97	97.47***	
교육대상						
어머니	23	1.03	85	.88 ~ 1.19	116.55***	9.96**
부모	6	.63	74	.36 ~ .90	22.68***	
회기수						
8회기 이하	15	.62	73	.45 ~ .79	56.68***	29.41***
9회기 이상	14	1.29	90	1.09 ~ 1.50	63.10***	
집단특성						
일반집단	21	.89	81	.74 ~ 1.03	113.09***	.04
특수집단	8	0.92	82	.61 ~ 1.22	36.06***	

1) 실험집단 부모의 사후검사 평균 점수보다 점수가 낮은 통제집단 부모의 비율

\*  $p < .05$ . \*\*  $p < .01$ . \*\*\*  $p < .001$ .

### 효과크기 $d$ 값의 의미와 해석

#### ○ $d$ 값의 의미

- '실험집단의 평균치가 통제집단의 평균치에 비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는가의 크기를 표준편차라는 공통의 척도로 변환시켜 놓은 것'(오성삼, 2002, 72-73)
-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가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표준편차( $Z$ ) 척도로 환산해 놓은 것

#### ○ $d$ 값의 해석

- $d$  값이  $|.2|$  일 경우는 작은 효과크기(small effect size),  $|.5|$  일 경우는 중간 효과크기 (medium effect size),  $|.8|$  일 경우는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로 해석할 수 있음 (Cohen, 1992)

#### ○ 중간, 작은, 큰 효과크기의 해석(Cohen, 1992)

- 중간 효과크기(small effect size) : 주의 깊게 관찰하면 맨 눈으로도 식별가능한 정도의 차이
- 작은 효과크기(medium effect size) : 중간 효과크기보다는 작지만 사소하다고 간주하기에는 의미 있는 차이
-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 : 중간 효과크기와 작은 효과크기의 차이만큼을 중간 효과크기에서 더해준 차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내 동질성 검사(homogeneity  $Q_w$ )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w = 149.19, p < .001$ ). 연구별로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은 나타났으므로 개별 연구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징, 즉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프로그램 회기수, 집단특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별도로 계산하고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취학 여부는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Q_b = 9.70, p < .01$ ).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 $d = 1.06$ )가 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 $d = .66$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교육인원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15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1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Q_b = 4.78, p < .05$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인원수가 15명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d = 1.14$ )가 16명 이상인 경우( $d = .82$ )인 경우보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교육대상은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교육한 경우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Qb = 9.96, p < .01$ ). 즉,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 $d = 1.03$ )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교육한 경우( $d = .63$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프로그램의 회기수는 8회기 이하인 경우와 9회기 이상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Qb = 29.41, p < .001$ ). 프로그램이 9회기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d = 1.29$ )가 8회기 이하인 경우( $d = .62$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효과의 강도가 더 컸다. 그러나 일반 부모집단과 특수 부모집단의 집단특성별 평균 효과크기에서는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5명 이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9회기 이상 비교적 장기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녀와의 상호작용, 양육행동과 같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린 미취학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음도 알 수 있다.

### 3.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중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부모 유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총 31편의 연구에서 계산한 효과크기를 통합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부모의 내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d = .63, 95\% CI = .51 \sim .74$ ). 효과크기  $d$  값은 .63으로서 중간 효과크기의 기준인 .5보다는 컸고 큰 효과크기의 기준인 .8보다는 작았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평균적인 부모는 참가하지 않은 부모의 74%보다 내적 변화를 측정할 사후검사 점수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변수	효과크기 수( <i>k</i> )	평균 효과크기 ( <i>d</i> )	% <sup>1)</sup>	95% 신뢰구간 ( <i>CI</i> )	범주내 동질성 ( <i>Q<sub>w</sub></i> )	범주간 동질성 ( <i>Q<sub>b</sub></i> )
전체	31	.63	74	.51 ~ .74	128.38***	
자녀취학 여부						
미취학	14	.57	72	.41 ~ .73	32.39**	.43
취학	16	.65	74	.45 ~ .84	87.16***	
교육인원수						
15명 이하	14	1.16	88	.89 ~ 1.43	60.76***	23.70***
16명 이상	17	.48	68	.34 ~ .61	43.93***	
교육대상						
어머니	26	.71	76	.57 ~ .85	99.72***	6.96**
부모	5	.36	64	.04 ~ .68	21.70***	
회기수						
8회기 이하	17	.56	71	.39 ~ .73	74.80***	0.47
9회기 이상	12	.64	74	.45 ~ .83	49.57***	
집단특성						
일반집단	20	.54	71	.40 ~ .68	84.19***	5.25*
특수집단	11	.83	80	.59 ~ 1.07	38.95***	

1) 실험집단 부모의 사후검사 평균 점수보다 점수가 낮은 통제집단 부모의 비율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내 동질성 검사(homogeneity  $Q_w$ )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w = 128.38, p < .001$ ). 연구별로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은 나타났으므로 개별 연구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 중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프로그램 회기수, 집단특성과 같은 조절변수로 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별도로 계산한 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인원수는 15명 이하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와 16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Q_b = 23.70, p < .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명 이하를 교육한 프로그램( $d = 1.16$ )이 16명 이상을 교육한 프로그램( $d = .48$ )보다 부모의 내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은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교육한 경우를 비교할 때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Q_b = 6.96, p < .01$ ). 어머니만을 교육한 경우( $d = .71$ )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교육한 경우( $d = .36$ )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집단특성별로는 일반적인 부모집단을 교육한 경우와 특수한 상황의 부모집단(장애아 부모, 미숙아의 부모, 저소득 부모, 이혼한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등)을 교육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Qb = 5.25, p < .05$ ). 특수집단의 부모를 교육한 경우( $d = .83$ )가 일반집단을 교육한 경우( $d = .54$ )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효과의 강도가 컸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자녀 취학여부와 프로그램의 회기수별 평균 효과크기에서는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5명 이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부모유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부모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4.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중 문제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건강,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자아개념, 학습기술 등 자녀의 변화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총 9편의 연구에서 계산한 효과크기를 통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녀의 변화에 있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d = .97, 95\% CI = .72 \sim 1.23$ ). 효과크기  $d$  값은 .97로서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평균적인 부모의 자녀는 참가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 중 83%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긍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5>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변수	효과크기 수( $k$ )	평균 효과크기 ( $d$ )	% <sup>1)</sup>	95% 신뢰구간 ( $CI$ )	범주내 동질성 ( $Qw$ )	범주간 동질성 ( $Qb$ )
전체	9	.97	83	.72 ~ 1.23	31.23***	
자녀취학 여부						
미취학	7	1.00	84	.71 ~ 1.29	28.11***	.41
취학	2	.77	78	-3.59 ~ 5.12	2.71	
교육인원수						
15명 이하	5	.80	79	.17 ~ 1.43	11.92*	.78
16명 이상	4	1.03	85	.62 ~ 1.44	18.53***	
회기수						
8회기 이하	5	.66	75	.24 ~ 1.07	6.74	18.80***
9회기 이상	3	1.71	96	.89 ~ 2.53	.38	
집단특성						
일반집단	6	1.08	86	.77 ~ 1.40	20.79***	5.10*
특수집단	3	.39	65	-.81 ~ 1.60	5.34	

1)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평균 점수보다 점수가 낮은 통제집단의 비율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내 동질성 검사(homogeneity  $Q_w$ )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동질성 가정이 기각되어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w = 31.23, p < .001$ ). 연구별로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은 나타났으므로 개별 연구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 중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프로그램 회기수, 집단특성별로 평균 효과크기를 별도로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9편은 모두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교육대상은 조절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회기수가 8회기 이하인 경우와 9회기 이상인 경우를 비교할 때 자녀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Q_b = 18.80, p < .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9회기 이상인 경우( $d = 1.71$ )가 8회기 이하로 구성된 경우( $d = .66$ )보다 자녀의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9회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여러 회기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8회기 이하로 단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자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집단특성별 평균 효과크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Q_b = 5.10, p < .05$ ). 일반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 $d = 1.08$ )가 결혼이민자 어머니나 미숙아의 어머니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d = .39$ )보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효과의 강도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한 상황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3편만 포함되었으며 이 중 2편이 결혼이민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고려한 자녀취학 여부 및 교육인원수별 평균 효과크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I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타분석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는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양육태도, 의사소통 등), 부모의 내적 변화(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등), 자녀의 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의 효과크기의 강도는 컸으며(large effect size), 부모의 내적 변화의 경우에도 중간보다 큰 효과크기였다.

이러한 평균 효과크기를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이숙영 등(2002)의 연구와 조정란(2012)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통합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89$ )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의 변화에 대해 이숙영 등(2002)이 보고한 평균 효과크기( $d = .97$ )보다 다소 작으며, 조정란(2012)이 보고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 $d = 1.56$ )와 부모자녀관계 및 의사소통의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 $d = 1.33$ )보다도 작다. 본 연구의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63$ ) 역시 이숙영 등(2002)이 보고한 평균 효과크기( $d = .73$ )와 조정란(2012)이 보고한 효과크기( $d = .73$ )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합한 자녀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97$ )는 이숙영 등(2002)이 보고한 자녀의 변화 및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d = .62$ )나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의 평균 효과크기( $d = .53$ )보다 크다. 최근 조정란(2012)이 보고한 평균 효과크기( $d = .99$ )와는 유사하다. 이렇듯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통합한 평균 효과크기와 석·박사 학위논문의 결과를 통합한 평균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향후 학술지 연구와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사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평균 효과크기에 차이가 나타난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프로그램의 특성(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회기수, 집단특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정량  $Q$  값을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행동적 변화 및 내적 변화, 자녀의 변화에 있어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연구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취학 여부, 교육인원수, 교육대상, 회기수, 집단특성을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행동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으나 부모의 내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인원수가 15명 이하의 소집단인 프로그램이 1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으나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의 성별이 동질적인 경우가 혼성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성공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9회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회기수가 많은 프로그램이 8회기 이하인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으나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장애아 또는 미숙아의 부모, 저소득 부모, 이혼한 부모, 결혼이민자 어머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내적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적 개입이나 특수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방적 성격의 개입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서구의 메타분석(Shadish

& Baldwin,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는 덜 효과적이었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집단특성 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 2. 시사점 및 제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행동적,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있어 부모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년-2015년)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한 가지로 ‘부모역할 지원’을 선정하고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위기 아동·청소년의 부모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 지원이라는 이러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며, 부모교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에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토대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및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본 메타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미취학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취학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행동적 측면에서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유형,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 방식은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 형성되므로 이 시기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양육기술 습득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15명 이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1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가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다른 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프로그램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9회기 이상으로 회기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회기수가 적은 프로그램보다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의사소통 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방식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부모의 행동 차원에서 변화,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변화를 통한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여러 회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결석이나 중도탈락 없이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부모의 행동적 변화나

부모의 변화를 통한 자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교육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참석한 부모들 간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콜센터, 뉴스레터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모들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장애아 부모, 저소득층 부모, 이혼한 부모, 다문화가족의 부모 등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고유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가 컸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최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아 부모, 저소득층 부모, 한부모가족의 부모 등 특정한 집단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면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기능 강화를 제안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예방적 성격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기에는 예산이나 전담인력의 수 등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실화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전달체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었고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건을 파악한 만큼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적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부모역할의 지원과 부모의 역량강화라는 가족정책의 세부과제와,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청소년정책의 세부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표시한 문헌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임

-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가족행복 더하기
- \* 강선경(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 109-136.
  - \* 권순영, 유형근(2007). 초등학생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학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상담학연구**, 8(2), 737-750.
  - \* 권희경, 권미경(2007).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3(1), 58-65.
  - \* 구미지, 김명희, 황선경(2009). 개심술 환아 어머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식, 불안,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21(6), 628-638.
  - \* 김경은, 정옥분(2007).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인간발달연구**, 14(1), 35-63.

- \* 김미례, 오명자, 오익수, 허승준(2008).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oday: APT)이 장애아 어머니의 자기격려와 자기낙담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4), 1665-1683.
- \* 김사라형선(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공감 증진 및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녀양육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141-152.
- \* 김영란, 김영태(2011). CAI를 활용한 부모훈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행동과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16, 127-142.
- \* 김영옥, 박성연(2011). 걸음마기 모-兒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아동학회지**, 32(1), 71-85.
- \* 김인홍(2006). 주의집중문제 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5(4), 491-499.
- \* 김정순, 신희선(2010).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미숙아 퇴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6(4), 344-351.
- \* 김현자(2007). P.E.T.와 현실요법을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기술과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4(2), 95-121.
- \* 류경희(2009). 초등학생 자녀의 인터넷 사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8), 53-52.
- \* 박상희(2007). 독서치료적 접근에 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31.
- \* 박진옥(2006). 체계적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Early Childhood STEP)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37-45.
- \* 박현미(2006). 웹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6(2), 157-178.
- \* 서은주, 이현림(2011).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01-123.
- 성미애, 송혜림(2008).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본 새 정부의 가정정책 : 분석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1-14.
- \* 손수향, 배근택, 이영호(2007).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연구**, 4(1), 1-17.
- 송혜림, 박정윤, 이완정, 성미애, 서지원, 진미정(2009). 부모역할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6), 91-108.
- \* 신성희 원정숙(2009). 학령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4), 492-500.
- 신용주, 김혜수(2011). **대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 양미진, 남은영, 이수림, 이자영, 허자영(2010). 저소득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18(1), 113-141.
- 오성삼(2009).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복실(2011). 청소년 정책과 가족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2011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3-17.
- \* 이사라, 박지숙(2010). 학령기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8(1), 1-14.
- \* 이숙미, 김성희(2009).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1(3), 723-746.
- 이숙영, 이운주, 정혜선(2002). 메타분석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37-653.
- \* 이순복, 정미숙(2006).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가족기능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10), 121-132.
- 이순형, 민하영, 권혜진, 정윤주, 한유진, 최윤경, 권기남(2010).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 이정은, 김춘경(2010). ADHD 아동의 주증상 완화와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부모교육과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1(1), 253-276.
- \* 이종석(2011). 에니어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연구**, 8(1), 9-36.
- \* 이지민, 오순자, 김경아, 이은정, 이지윤, 황문숙, 김정숙(2010). 산소요법 적용 미숙아 어머니에 대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6(2), 144-155.
- \* 이현림, 류현정, 김지혜(2007).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2), 533-547.
- \* 이희백(2007). 정신역동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모의 정신건강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학연구**, 2(2), 55-68.
- \* 장미경(2011).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77-297.
- \* 장성애, 유연옥(2008).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3), 187-202.
- \* 정교영, 신희천(2011).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03-634.
- \* 정남주, 이영환(2010).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술치료연구**, 17(2), 379-413.
- \* 정미숙, 한민경, 한윤경(2010). 현실치료를 적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9(2), 229-243.
- \* 정원철, 유영달(2011). 교류분석(TA) 활용 부모교육이 학교부적응 중학생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자아상태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3(2), 75-107.
- 조경란(2012).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은(2004).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1), 415-429.
- \* 조윤숙, 이운주(2011). 감수성 훈련을 적용한 한국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가

**죽과 문화**, 23(4), 1-40.

- \* 조일현, 성승연(2011). MBTI를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1), 73-89.
  - 진윤아, 이나련, 정유진(2011). 미국 거주 아시아계 이민자 부모의 문화적응과 부모-청소년 자녀관계의 관련성: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9-34.
  - \* 천희영(2009). 발달적 독서치료를 활용한 부모 대상의 유아 성학대 자기보호 교육자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7(9), 37-53.
  - 최윤희(2009).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최형성(2010).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1):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4), 57-70.
  - \* 한민경, 한윤경, 정미숙(2010).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35-256.
  - \* 황옥자(2009). 불교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29, 1-17.
  - \* 황은숙, 서영숙(2007).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2), 23-64.
- Barlow, J., Coren, E., & Stewart-Brown (2002).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programmes in improving maternal psychological health.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52, 223-233.
- Brock, G. W., Oertwein, M., & Coufal, J. D. (1993). Parent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M. E. Arcus, J. D. Schvaneveldt, & J. J. Moss (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 2, pp. 87-114). Newbury Park, CA: Sage.
- Carter, N. (1996). *See how we grow: A report on the status of parenting education in the U.S.* Philadelphia: Pew Charitable Trusts.
- Cedar, B., & Levant, R. F. (199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73-384.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Ramey, S. L., Shure, M. B.,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013-1022.
- Hedges, L. V., & Olkin, I. (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Holmes, E. K., Galovan, A. M., Yoshida, K., & Hawkins, A. J. (2010).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fathering programs. Are family life educators interested in fathers? *Family Relations*, 59, 240-252.

- Kaminski, J. W., Valle, L. A., Filene, J. H., & Boyle, C. L. (2008). A meta-analysis review of components associated with parent training program effective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67-589.
- Lundahl, B. W., Nimer, J., & Parsons, B. (2006). Preventing child abuse: A meta-analysis of parent training program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 251-262.
- Lundahl, B., Risser, H. J., & Lovejoy, C. (2006). A meta-analysis of parent training: Moderators and follow-up effec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86-104.
- Pillemer, D. B., & Light, R. J. (1980). *Synthesizing outcomes: How to use research evidence from many stud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134-148.
- Reyno, S. M., & McGrath, P. J. (2006). Predicting of parent training efficacy for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99-111.
- Rosenberg, M. S., Adams, D. C., & Gurevitch, J. (2000). *Meta Win: Statistical software for meta-analysis* (Version 2.0). Sunderland, MA: Sinauer Associates.
- Shadish, W. R., & Baldwin, S. A. (2003). Meta-analysis of MFT interventio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547-570.
- Weissberg, R. P., Kumpfer, K. L., & Seligman, M. E. P. (2003). Prevention that works for children and youth. *American Psychologist*, *58*, 425-432.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 국내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손 서 희(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나은 부모역할 수행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가 수행되어왔습니다. 메타분석은 상이한 맥락 속에서 수행된 방대한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인 틀 속에서 분석하고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전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자로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연구이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 편의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가 축적되는 시점에서 전체 결과를 통합하여 조망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evidence) 확보와 근거중심실천(evidence based practice) 및 근거중심정책(evidence based policymaking) 수행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제언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논문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자가 선정한 조절변수 중 교육 인원수와 프로그램 회기수에 대한 이분변수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회기수를 8회기 이하와 9회 이상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기수별 부모의 행동적 변화와 부모의 내적 변화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지식, 태도, 기술 등과 같은 행동적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과 양육스트레스나 부모효능감과 같은 부모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와 내적 변화의 효과성 크기 비교를 위한 프로그램 수행기간에 대한 범주를 달리하여 검증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제시한다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기존의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PET, APT, STEP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는지, 그 밖의 프로그램 이론, 철학, 회기별 교육내용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논의 부분에 함께 제시해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해진다면 보다 유용한 논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은 연구자들이 제기한 메타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며, 개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의 질적 향상과 나아가 아버지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합니다. 개별 연구의 질적 향상 없이는 신뢰할만한 메타분석 연구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즉,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연구를 종합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개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의 엄격한 연구 설계 및 연구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연구 설계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메타분석 결과 간의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문제 제기를 고려할 때,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과성의 크기간의 관계에 대한 추후 검증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의 부족으로 자녀의 행동 변화나 내적 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향후 효과성을 검증하는 개별 연구에서는 자녀의 내외적 변화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측정 수준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녀 수준의 변화를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나 제 3자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자녀수준의 변화를 자녀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 실천적 차원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와 함께 아버지교육 효과성 연구 또한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통제 집단을 포함한 아버지교육 연구가 한편도 없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달리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평가 및 효과성 검증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실시뿐만 아니라 엄격한 평가 및 증거기반 구축 과정에 있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장 전문가들과 가족정책담당자들은 메타분석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